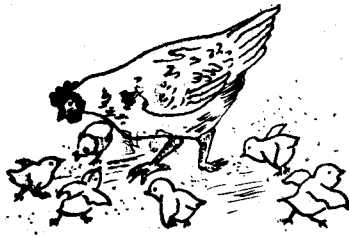


# 닭이 노래하기를 멈출 때...

김 영 환  
(천호부화장 전무)



육체적인 노동을 열심히하는 계사관리자가 우수한 관리자는 아니다. 관리자는 닭의 건강상태와 행동을 눈여겨살펴보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낼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하루에 한번은 닭개체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30수정도를 손으로 만져보고, 눈, 귀, 코로 유심히 조사해보는 것은 좋은일이다. 만일 닭들이 사료와 물을 잘먹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잘 움직이면 계군상태는 정상적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견되면, 무언가 고쳐야 될 점이 있음을 직감하여야 한다.

## 1. 과민한 행동

닭이 놀라 날뛰거나, 과도하게 신경질적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잘못이 있지 않은지 검토한다.

1) 점등광도가 너무 밝지않은지를 검토한다.

전력 사정에 따라 60와트 전구가 너무 밝은 경우도 있다. 특히 초산계(25~35주령)에는 40와트 전구가 필요할지 모른다. 여하간 닭이 너무 과민한 행동을 보이면 60와트전구를 30~40와트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2) 계사내가 너무 덥지않은지 검토한다.

3) 환기량을 증가시켜 계사내에 축적된 계분가스를 뽑아낸다.



계분을 자주 쳐낸다. 계사에 환풍기를 설치한다.

4) 사료배합율을 닭에 맞게 개선한다.

곰팡이난 원료로 만든 사료 또는 염도가 낮은 사료가 카니발리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비타민, 무기물이 잘 배합된 사료를 급여하도록 한다.

5) 디비킹을 해준다.

카니발리즘이 심하게 문제될 때에는 반드시 디비킹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산란 피크시기에 과민행동이 많이 나타나므로 초산전에 이미 디비킹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6) 주위의 소음을 줄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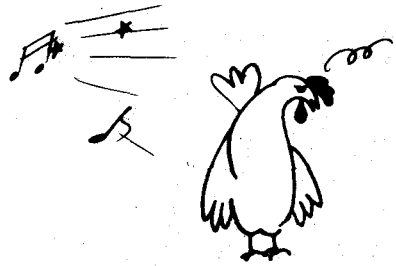
7) 환경을 닭이 생활하는데 쾌적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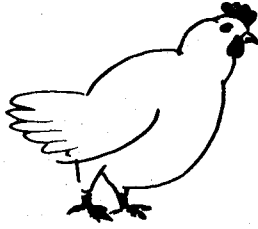
선천적으로 날카로운 성질을 가진 닭이나, 육추 육성시의 관리잘못으로 신경질적인 버릇이 들은 닭들은 개선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개의 과민행동은 교정되거나 개선될수있다.

이러한 과민한 행동은 고밀도 수용이된 닭일경우 특히 문제가 되어 히스테리아로까지 발전하는데 이 령계되면 교정이 어려워진다. 닭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미리 교정해주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3. 산란계에서 노래소리가 줄어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닭도 기분이 쾌적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노래를 부른다. 이런 때에는 제법 닭장이 시끄러울 정도다. 닭장에서 이러한 시끄러운 노래소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것은 닭이 스트레스를 받고있거나, 닭이 건강하지 않거나, 어떤질병에 걸려있음을 뜻한다. 다 음과 같은 경우에 닭은 노래하기를 멈춘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다,





- 곰팡이 난 사료를 섭취하여 마이코톡신 독소를 먹었을 경우.
- 너무 밀사되어 사육 환경이 나쁠때.
- 움직이는데 고통이 있을때.
- 비 특이성 장염, 콕시듐등의 소화기내에 질환이 있을때.

그러므로 닭장에서 노래소리가 그치면, 좋지않은 닭 몇마리를 실험실에 의뢰하여 부검하고, 계사환경의 개선점을 찾는것이 현명하다.

### 3. 과도하게 크고 두터워진 벼슬과 다리, 육수, 과도한 복부지방등 조직의 이상비대 현상이 나타날 경우

케이지 산란계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와같은 증상을 보일수도 있다. 이러한 닭은 케이지 밖으로 끌어내어 계사 바닥이나 평사에 수용한다. 또는 케이지 바닥에 고무나 플라스틱제 매트를 깔아주어도 좋고, 한 칸당 수용수수를 줄여주는것도 한 방법이다. 계사내에 계분개스가 과도히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량을 증가하고 계분을 자주 제거해 준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효과가 있는 교정법은 거의없고, 사료배합율을 재조정, 사료급여량을 제한, 신선한 사료를 주어 닭이 과도히 살이찌지 않도록 해준다.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4. 산란계의 얼굴주위의 피부가 창백하거나 건조한 것은 좀더 깊이 조사해 봐야할 정도로 건강이나쁜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상은 혈액의 문제로서 전해질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닭은 산란개수도 적고 난자도 더 얇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할 사항은 닭과 그 동태를 유심히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환경, 사료, 건강을 개선해주는 일이다.

〈하이섹스지 제 10호에서〉